

## 학업성취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 경 회<sup>†</sup>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이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내용 및 생활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여 서울에 있는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입학된 정도 장애아동 87명과 아동들의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원변량분석과 t-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학업성취 수준은 장애아동의 적응 행동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비장애아동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장애아동은 부모 지지, 특수교사 지지, 통합학급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남자아동인 경우 부적응 행동 중 과잉행동이 여자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 결손인 경우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불안이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장애인 경우 정신지체와 학습장애보다 비행성과 과잉 행동성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있어서 학업성취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밝혀주고 있다.

주요어 : 통합교육, 부적응 행동, 사회적 지지, 특수학급

\* 본 논문은 후기 필자(장성숙)의 지도로 선기 필자(부경회)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2년)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부 경 회, (158-7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7동 신시가지 아파트 1107동 1007호

전화 : 011-9632-9916 E-mail : hopepu@hanmail.net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풍부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영역의 발달을 돕고, 모방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차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orgen & York, 1981). 그러나 비장애아동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반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와 연속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어 낮은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Murphy & Corte, 1990; Saracoglu, Minden, & Wilchesky, 1989, 최치식, 2000). 그러므로 통합교육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라는 인지적, 기능적 제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세밀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인 경우, 수행하는 교육 활동의 많은 부분을 장애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수학급 장애아동들 중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애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학습장애나 경도 장애아동들인 경우에 특히 심해진다. 이것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특수교육학과의 교과목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장애인의 인지적인 특성과 그에 따르는 교육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라는 사회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의 목적과 특수교사의 학업성취에 대한 집중된 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즉, 특수교사들의 집중된 활동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실제로 장애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고 부

적응 행동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은 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적응행동을 획득해 나간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예로부터 학생에게 있어 학습과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비장애아동인 경우 이러한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노숙영, 1998; 문선모, 1976; 민병수, 1991; 손희준, 1987; 신원영, 1992; 원용진, 1993; 최순복, 1985; Jane, Close, Conoly & Collie W. Conoley, 1991). Jane, Close, Conoley, 및 Conoley(1991)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상필(1990)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적이 높고, 적응 수준이 낮은 학생은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학교적응도가 학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나 부모, 교사의 무리한 요구 속에서 학업 성취는 학생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것은 다시 학교 부적응 행동을 발생하게 한다. 이처럼 부적응 행동은 성격 문제, 가정환경 문제 등과 같은 성격적 및 환경적 요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과다행동, 과소행동, 공격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 또는 위축된 행동을 보여 학교생활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교사와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주경진, 1994). 그러나 이러한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비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생님, 또래,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강성희, 1995; 박지원, 1989; 백경애, 1997; 송종용, 1988; 송주미, 1992).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한미현, 1996). 또한 아동기에 동료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경험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인생 후반기에 사회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Parkhurst & Asher, 1992).

Perry(1986)와 Harter(1985) 및 김명숙(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유형은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 친구, 교사 등이 의미 있는 타자이며,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지면서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1994). 이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김영신(1999)은 특수학급 장애아동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김영신(1999)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의 부적응 행동은 미숙/공격성 행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결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적응 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 아동들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첫째, 또래나 친구들과의 기쁨,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구 지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지 지각 순서에서도 부모, 친구, 교사 지지 순서로 지각하는 비장애 아동들과는 달리 부모 다음으로 교사 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지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장애아동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개개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전체를 계획하고 조정하고 담당하는 있는 교육 담당자가 특수교사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아동에게 끼치는 특수교사의 영향은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지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적응 행동이 단지 장애를 가진 아동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점차 장애아동이 처한 환경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또한 그 부적응 행동을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에 있어서도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장애 아동의 심리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아동이 속한 환경과 연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비 장애아동들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법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경도 장애아동들인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가장 높게 집중되는 대상으로서 오히려 학업에 대하여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통합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교육 내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 성취 지도가 과연 장애아동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비장애아동들의 경우,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를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지지로 나누어 그 수준을 파악하고 부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학교환경에서 장애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지원으로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며 또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단순한 행동수정 목표물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이 겪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겨난 산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지와 지원의

제공되는 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역할의 담당자로서 특수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결손 여부, 형제 유무, 장애 유형 그리고 형제 순위와 같은 변인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특수학급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장애아동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교육 활동 내용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아동들이 학교라는 통합 교육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통합 교육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장애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낮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은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의 11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선정된 7개 지역 교육청(남부, 동부, 동작, 서부, 성동, 성북, 중부)에 속한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중 총 21개 특수학급에 입학된 4-6학년 장애아동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자기

보고식 측정이 가능한 경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의뢰하여 대상 아동들을 1차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들은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으로 국어, 수학 시간 등 기본과목 운영 시간에만 특수학급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고 그 이외의 학업과 활동은 통합학급에서 진행되는 시간제 특수학급 운영 대상 아동들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장애 분류에 근거한 학습장애가 66명, 정신지체가 14명, 정서장애가 7명으로 총 87명이다

### 측정도구

2002년 2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초등학교 학습 부진아동 선별을 위한 기초·기본학습 판별검사 도구(국어, 수학 문제지)를 기본으로 하여 경도 장애아동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변별될 수 있도록 세 차례의 사전 조사를 통한 문항을 경력 10년이 넘는 특수학급 교사 7명이 검토, 수정 후 학업성취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김명숙(1994)이 사용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SSAS는 Dubow & Ulman(1989)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측정을 위해 3-7학년용 대상으로 조사하여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지지 문항과 같은 내용으로 특수학급 교사의 지지 문항 8개를 추가하여 연구자와 보조자 1인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부적응 척도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기초로 홍경지(1986)가 한국아동에게 적용해 개발한 아동행동 조사표를 바탕으로 하여 6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한 김영신(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 절차 및 분석 방법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특수교사가 선정한 1차 장애아동들은 개별면접하여 사회적 지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학습능력 검사는 아동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가 과목당 40분의 시간을 제공하여 한 학교당 1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고 장애아동의 담임인 통합학급 교사에게 아동의 부적응 행동 질문지를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장애아동 87명의 자료는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학업성취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상관 관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부적응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학업성취 수준과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의 학업성취 수준은 국어 과목이 평균 45.82이며 표준편차 25.31이고 수학과목인 경우 평균 52.17과 표준편차 25.15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취 수준 총합을 살펴보면 과목 평균이 95.82, 표준편차 46.67, 최소값 5, 최대 190이며 표준편차는 46.67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높은 표준편차와 최소치와 최대치의 큰 차이를 볼 때 개인별 학업성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특수학급에 속해있는 장애아동들인 경우 학업성취는 부적응 행동과 상관관

표 1. 연구대상의 학업성취 수준과 부적응 행동간의 상관관계

	국어	수학	학업성취 총합
우울성	.04	.06	.08
사회적 위축성	.01	-.15	-.07
과잉불안	.02	-.10	-.05
미숙/공격성	-.01	-.01	-.02
비행	.03	.13	.10
과잉활동	.01	.05	.04
부적응 행동(전체)	.01	.01	.01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아동과는 달리 장애아동들인 경우 학업성취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되고 있는 학습지도가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은 대다수인 비장애아동들 속에서 서로 끊임없이 비교되는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부적응 행동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으로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상관관계

먼저 연구대상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특수교사지지, 통합학교 교사지지 그리고 친구지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지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족 지지인 경우,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명숙(1994)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영신(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서 장애아동들은 가족지지를 가장 높은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지로 인식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지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 가족 지지의 표준편차(SD = 5.84)와 최소치(Min = 14) 보다도 낮은 표준편차와 높은 최소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애아동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가장 안정적인 지지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들과 부적응 행동 전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부적응의 하위 요인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적응 행동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이

표 2. 연구대상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친구 지지	26.27	8.47	8	40
통합학급 교사 지지	30.04	6.35	12	40
특수교사 지지	32.52	4.96	18	40
가족 지지	34.02	5.84	14	40
총합	122.85	15.62	74	160

표 3.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하위영역	친구 지지	통합학급 교사 지지	특수학급 교사 지지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전체)
우울성	.183	-.142	-.171	-.166	-.251*
사회적 위축성	-.200	-.207	-.098	-.214*	-.279**
과잉불안	-.224*	-.205	-.159	-.273*	-.328**
미숙/공격성	-.371*	-.228*	-.247*	-.284**	-.439***
비행	-.258*	-.241*	-.251*	-.230*	-.370***
과잉활동	-.310**	-.273*	-.247*	-.241*	-.411***
부적응 행동(전체)	-.325**	-.273*	-.248*	-.282**	-.432***

\*  $p < .05$  \*\*  $p < .01$  \*\*\*  $p < .001$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이로써 장애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 행동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부적응 행동

연구대상의 성별은 과잉 행동성에 있어서  $0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들보다 과잉 행동성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별은 부적응 행동 전체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영신(1999)이 성별에 따른 부적응 하위 영역별 차이가 없다는

표 4. 성별에 따른 부적응 행동 수준의 차이

	남자(N=60)	여자(N=27)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성	15.23(3.39)	14.42(2.05)	1.10
사회적 위축성	10.50(3.01)	10.96(2.61)	-.66
과잉불안	17.96(3.46)	17.92(2.54)	.06
미숙/공격성	31.33(6.01)	29.80(3.79)	1.42
비행성	14.93(2.92)	13.80(2.43)	1.71
과잉행동성	21.76(4.46)	19.42(2.87)	2.89*
부적응 행동(전체)	86.20(14.44)	82.07(8.26)	1.63

\*  $p < .05$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혼 여부에 따른 부적응 행동**

결혼 가정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인 경우 표 5와 같이 우울성과 사회적 위축성, 과잉불안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울성, 과잉활동 수준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김영신(1999)의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부모 결혼 여부가 장애아동의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적인 심리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결혼 여부가 유일하게 부적응 행동 전체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김영신(1999)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여부가 부적응 행동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는 결혼 여부가 부적응 행동 수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 종류에 따른 부적응 행동**

학습장애와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부적응 행동

의 각각 영역 혹은 부적응 행동 전체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장애인 경우는 비행성 행동과 과잉행동성에서 유의하게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서장애라는 판별 기준이 행동의 정도가 일반적인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극심한 상태로서 품행이나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인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정서장애가 높은 수준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부적응 행동 전체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은 연구 대상과 같은 특수학급의 정도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의 종류는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응 행동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비행성과 과잉행동성이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비행성과 과잉행동성 항목에 대한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항목 모두에서 정서장애가 학습장애, 정신지체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결혼 여부에 따른 부적응 행동 수준의 차이

	양친존재(N=65)	결혼(N=22)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성	14.55(2.90)	16.22(3.55)	2.19*
사회적 위축성	10.19(2.83)	11.95(2.68)	2.54*
과잉불안	17.47(2.91)	19.31(3.63)	2.39*
미숙/공격성	30.23(4.90)	32.68(6.58)	1.83
비행성	14.50(2.74)	14.81(3.09)	.44
과잉행동성	20.58(3.83)	22.36(4.88)	1.74
부적응 행동(전체)	83.30(11.40)	89.63(16.25)	1.69

\*  $p < .05$



표 6. 장애 종류에 따른 부적응 행동 수준의 차이

	1. 학습장애(N=66)	2. 정인지체(N=14)	3. 정서장애(N=7)	F	Scheff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성	14.98(3.03)	14.42(2.50)	16.33(5.46)	.76	
사회적 위축성	10.43(2.93)	11.21(2.54)	11.66(3.26)	.82	
과잉불안	17.61(3.20)	18.57(2.73)	20.16(3.48)	2.21	
미숙/공격성	30.40(5.16)	30.92(5.04)	35.83(7.78)	2.84	
비행성	14.43(2.42)	13.64(1.78)	18.50(5.39)	7.72 ***	3>1,2
과잉행동성	20.78(3.79)	20.00(2.77)	26.33(7.11)	6.02 ***	3>1,2
부적응 행동(전체)	83.87(12.00)	83.92(9.27)	98.83(23.15)	3.92	

\*\*\*  $p < .001$

즉, 세집단의 부적응 행동 평균을 살펴보면 학습 장애는 정인지체와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서장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서장애 대상 아동의 수가 7명으로 너무 적고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성별, 양친 존재여부, 학습능력, 장애종류를 통제 했을 때에도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양친존재여부, 장애유형, 학습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적응 행동의 하위 영역 및 행동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우울성을 살펴보면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특수학급 아동보다 결손가정의 장애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손아가 양친이 존재하는 아동에 비하여 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

난다는 김영신(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성은 성별, 형제 수, 장애종류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특수학급 아동보다 결손가정의 장애아동의 사회적 위축성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가정 결손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사회적 위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과잉불안을 살펴보면 결손가정의 장애아동의 과잉불안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나며 우울, 사회적 위축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의 과잉불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숙/공격성에는 사회적 지지가 유일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숙/공격성은 장애아동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행성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정서장애가 의미

표 7.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하위 변인	부적응행동	B	SE B	t
성별(여자)	우울성	-.61	.74	-8.3
	사회적 위축성	.62	.65	.95
	과잉불안	.29	.72	-.41
	미숙/공격성	-.63	1.19	-.53
	비행성	-.68	.61	-1.11
	과잉행동	-1.78	.88	-2.01*
	부적응행동전체	-2.24	2.82	-.79
양친존재(존재)	우울성	-1.40	.79	-1.77*
	사회적 위축성	-1.71	.70	-2.43*
	과잉불안	-.73	.77	-2.25*
	미숙/공격성	-1.98	1.26	-1.56
	비행성	-.04	.65	-.07
	과잉행동	-1.46	.94	-1.55
	부적응행동전체	-5.21	3.01	-1.73*
장애 유형 정신지체	우울성	-.29	.98	-.30
	사회적 위축성	.73	.87	.84
	과잉불안	.97	.95	1.02
	미숙/공격성	.53	1.57	.34
	비행성	-.63	.81	-.78
	과잉행동	-.60	1.17	-.52
	부적응행동전체	.40	3.73	.11
정서장애	우울성	.39	1.44	.27
	사회적 위축성	.50	1.28	.39
	과잉불안	1.39	1.41	.99
	미숙/공격성	2.38	2.32	1.02
	비행성	2.81	1.19	2.35*
	과잉행동	3.59	1.72	2.08*
	부적응행동전체	8.11	5.51	1.47
학업성취	우울성	.01	.01	.26
	사회적 위축성	-.01	.01	-1.00
	과잉불안	-.01	.01	-.64
	미숙/공격성	-.01	.01	-.68
	비행성	.01	.01	.47
	과잉행동	-.01	.01	-.16
	부적응행동전체	-.01	.02	-.32
사회적지지	우울성	-.03	.02	-1.67*
	사회적 위축성	-.04	.02	-2.38*
	과잉불안	-.04	.02	-2.24*
	미숙/공격성	-.11	.03	-3.10**
	비행성	-.03	.01	-2.01*
	과잉행동	-.06	.02	-2.54*
	부적응행동전체	-.25	.08	-3.00**

\* $p < .05$  \*\* $p < .01$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장애인 경우 아동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 비행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정서 장애인 경우 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로 비행의 정도가 완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잉 행동에서는 성별과 정서장애, 사회적 지지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여자 아동보다는 남자 아동인 경우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장애인 경우와 사회적 지지가 낮게 지각될 경우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응 행동 전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양친 존재 여부가  $p < .05$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양친 부모가 모두 존재할 때,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 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 행동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김영신(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업성취 수준,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 그리고 장애아동의 성별, 결손 여부, 장애종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후 장애아동이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내용 및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부적응 행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이 기각됨으로써 장애아동의 학업성취수준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e, Colse 및 Conoley(1991)과 이상필(1990), 주경진(1994)의 연구에서 밝힌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비장애아동의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현재 정도 장애아동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학업적 기대 수준과 대다수의 특수교사가 진행하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일반아동들의 경우와 유사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장애아동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모색과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장애아동일수록 부적응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부모 지지, 특수교사 지지, 통합학급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친구 모두 부적응 행동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아동들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지적하는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ast, Hess, & Lerner, 1987; Hoffman, Ushpiz, & Levy-Shiff, 1988; 한미현, 1996; 노숙영, 1999), 또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김승국(1996)과 김영신(1999)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수교사의 지지인 경우 가장 높은 최소치와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장애아동들에게 제일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처로 인식되고 있음이 새롭게 조명되었

다. 특수교사가 가장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자로 나타난 결과는 장애아동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학교생활에서 장애아동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장애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결손 여부, 장애 유형에 따라 부적응 행동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인 경우 부적응 행동의 과잉 행동 경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김영신(1999)의 성별에 따른 부적응 하위 영역별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결손 여부는 부적응 행동의 하위 영역인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적응 행동 전체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점은 김영신(1999)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결손 여부가 부적응 행동 수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장애와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정서장애인 경우 부적응 행동 중 비행성과 과잉활동성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부적응 행동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장애아동이 가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밝혀준다. 즉, 개인적 변인과 같은 개개인의 조건이 부적응 행동 전체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밝혀준다.

미국과 일본 등 장애아동 교육에 대해 서구 선진 국가들은 장애의 진단에서부터 교육에까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병리학자, 사회사업가, 의사, 학교 행정가, 심리학자, 특수교사 등 각각의 전문영역을 지닌 서로 다른 분야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협력해나가는 시스템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소현, 1995). 이러한 팀 체계 속에서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능적인 학업 기술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사의 현실은 아직까지 하나의 팀을 이루는 시스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가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지원 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는 특수교사의 고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는 특수교사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아동의 성공적인 통합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된 장애아동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업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든든한 지지자와 보호막이 되어주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특수교사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아동인 경우 비장애아동과는 달리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 수준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통합환경에서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대부분이 학업성취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이

것은 특수교사가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의 적응이라는 통합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임을 밝혀주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지지가 갖춰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수교사의 지지에 대한 장애아동의 지각 수준을 파악해 본 것은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지지원으로서 특수교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보다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수교사에게 더욱 더 든든한 장애아동의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역할과 함께 학교환경 자체가 장애아동에게 지지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역할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학업성취를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특수교사를 제외하고 통합 학급 교사의 평정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통합학급에서 나타난 부분만 고려되었다. 셋째,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해 개인적인 자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성희 (1995).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국 (1996).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연구. 특수교육논총 제 13권, 1-18.
- 김영신 (1999). 사회적 지지가 특수학급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숙영 (1999).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선모 (1976).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지도 연구. 제 3집, 17-2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9).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백경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희준 (1987). 고등학생의 우울 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중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과제의 수행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주미 (1992).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원영 (1992). 자아개념과 학업성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용진 (1993). 학습자의 귀인성향과 학업성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필 (1990). 교육 심리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주경진 (1994).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기술과 부적응 행동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최순복 (1985). 고교생의 지능, 학업성취와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치식 (2000).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요구되는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적 적응 기술.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경자 (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 양상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ast, P. L., Hess, L. E., & Lerner, R. M. (1987). Peer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peer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7, 153-163.
- Harter, S. (1985).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an (Eds.), *Competence consider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A., Lavy-Shiff, R., & Ushpiz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Jane, Close, Conoley & Collie W. Conoley (1991). Collaboration for Child Adjustment: Issues for School and Clinic-Based Child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21-829.
- Morgan, D., & York, M. E. (1981). Ideas for mainstreaming young children, *NAEYC, Young Children*, 36, 18-25.
- Murphy, L., & Corte, S. (1990). School-related stress and the special child. *Special Parent/Special Child*, 6, 1-8.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1-241.
- Perry, D. G. (1986).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al Hall.
- Saracoglu, B., Minden, H., & Wilchesky, M. (1989). The adjust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o univers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2, 590-592.

원고접수일 : 2004. 5.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15

게재결정일 : 2004. 8. 3

## The Effect Of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Maladjustive behavior of the handicapped in special classroom

Kyung-Hee Boo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ntents and effective direction of special education which aim at the social inclusion of the handicapped children through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the student' perception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the maladjustive behavior in school life respectively. Also,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maladjustive behavior caused b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sex of the handicapped student, the presence of parents and the type of handicap is another purpos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7 mild handicapped children capable of measuring by self-reporting form and the general classroom teachers which the subject children belo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handicapped children perceive social support in the order of parents support, special teacher support, classroom teacher support and peer support. And the higher they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lower they conducted the maladjustive behavior. Second,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on the maladjustive behavior of the handicapped children,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have no effect on the maladjustive behavior. This result for the handicapped is different from that of non handicapped children, that is, high academic achievement level can exert positive influence on the adaptability to school life for non handicapped children. Third, in the demographic respect, the handicapped school boys show higher degree in hyperactivity among maladjustive behaviors than that of the handicapped school girls. The children who has no both or one parents show high level in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hyperanxiety especially. And in case of emotional disorder, delinquency, and hyperactivity are high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mental retarded and the learning disability. This result suggest that the handicapped children acting maladjustive behavior need just the social support based on the psychological support rather than the improvement in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special teachers' role needs to be converted from the activities focused on academic achievement to the activities creating supportable environment, understanding, admitting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supporting the handicapped children.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maladjustive behavior, social support, special classroom*